

설 앞두고 수요 급증 5만원권 '귀하신 몸'



회수율 낮고 공급량 부족 탓 ... 고객들 불멘소리

일부 금융기관 '지급 불가' 안내판 내걸기도

일명 '신사임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액권 5만원권이 언제부터인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일찌감치 찾는 이들이 많지만 회수율이 낮고 공급량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광주·전남 금융권에 따르면 월초부터 5만원권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고객들이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아예 '5만원권 지급 불가'라는 안내판까지 내걸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은행들은 설 명절을 맞아 5만원권 신권을 찾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고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공급량이 줄어 어려움을 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한 은행의 규모가 있는 지점의 경우 한국은행에 1회에 많게는 5만원권 4000장(2억원)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100%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은행 또 지점 관계자는 "한 번에 1000만~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바꿔 달라는 고객들도 있는데 보유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는 1만원권으로 교환해주는 데 항의도 있고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5만원권이 품귀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선,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 화폐 발행액은 3조633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77억 원) 증가했으나, 환수액은 2조1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3665억 원) 감소했다. 5만 원권 환수액이 전년도보다 58.2%(4495억 원)나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5만 원권 환수액은 8889억 원에서 이듬해 1조 168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다시 2013년, 2014년에 7723억 원과 3228억 원으로 급감했다.

한국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면 한 손에 돌아온 5만원권은 200장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만원권이 고액 현금이라서 탈세나 재산 은닉, 비자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대거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평소 거래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5만원권 수천만원씩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5만원권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며 "재고량 조절 차원이거나 각 은행 본점과 지점의 자금 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밸런타인데이 선물용 주얼리 인기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4일 백화점에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목걸이, 반지, 참(charm) 등 다양한 주얼리 제품이 선보였다. 각각 다른 소재와 색상으로 만든 작은 돌맹이 크기의 보석을 다양한 길이의 체인에 끼워 만든 참은 하나뿐인 '나만의 주얼리'로 만들 수 있어 커플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4일 백화점에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목걸이, 반지, 참(charm) 등 다양한 주얼리 제품이 선보였다. 각각 다른 소재와 색상으로 만든 작은 돌맹이 크기의 보석을 다양한 길이의 체인에 끼워 만든 참은 하나뿐인 '나만의 주얼리'로 만들 수 있어 커플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2.79 (+10.83)
- ▲ 금리 (국고채 3년) 1.96% (+0.03)
- ▲ 코스닥 598.23 (+4.92)
- ▼ 환율 (USD) 1084.10원 (-13.30)

"2025년까지 적정 주택공급량 연 33만가구"

주택산업연구원 분석

2025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가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주택 수요량보다 연 5만9000가구 정도 적은 것이어서 공급 과잉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유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실장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에서 분양이나 입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하고 2000~2014년의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차감해 유효 공급량을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구 증가율이나 대출 금리,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5~2025년의 유효 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33만1000가구로 산정됐다. 올해의 경우 34만5030가구, 내년에는 34만499가구, 2017년에는 33만5914가구 등으로 점점 줄다가 2025년에는 29만547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정치는 2001~2013년의 연평균 유효공급량인 41만1400가구(전국)와 견뎌볼 때 79%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추정치가 정부가 전망한 주택 수요량의 85%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은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수요량을 39만가구로 잡고 있다. 이번 추정치와 비교하면 연평균 5만9천가구가 초과 공급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신속 지원

24시간 특별지원반 운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원활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세관은 이번 설 성수품 신속 통관과 관세 환급금 선지급 등 수출입 화물의 적기 공급과 수출입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우편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9일~17일까지 9일간 환급업무 처리 시간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 신청시 당일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2012년~2014년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또는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2년간 체납 또는 범칙이 없는 제조업체의 통관단계 납부세액에 대해 2014년도 납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제유가 급등 ... 주유소 휘발유값 하락세 '스톱'

광주·전남 보험세 유지

두바이유 가격이 이틀 동안 배럴당 7달러 급등하며 50달러선으로 올라서자 광주·전남을 비롯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의 하락세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작년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1713.5원에서 4일 현재 1410.1원으로 303.4원 내렸

다. 하지만, 지난달 31일(1419.1원)부터 나흘 동안 휘발유 값 하락폭은 10원도 채 되지 않아 1당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사실상 하락세가 멈춘 상태다.

광주·전남 지역 역시 휘발유 평균값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뭇잎을 줄이면서 1당 평균 1400원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지난 25일 1430원대에서 조금씩 하락해 4일 현재 1399.39원으로 1400원대 마지노선을 돌파한 상태이며 전남

은 같은 날(25일) 1450.54원에서 4일 현재 1412.84원을 기록했지만 내림폭이 좁아지면서 보험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역 최저가 판매 주유소들도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가격 인상에 나설 조짐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유가 급락 추세에 휘발유를 1당 13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업계에서 출혈경쟁이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두바이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가격이

인상하는 주유소가 속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전날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1당 3원 올린 데 이어 이번 주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음주에는 1당 35원 이상 인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V자형'으로 계속 급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1년 사이 반 토막 날 줄 아무도 예상 못 했던 것처럼 투기세력이 움직인다면 가격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6월까지 중단하라"

법원,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4일 나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결정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전남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앙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